

작품 내용

제 목	내 사진이 어딘가에 있다
내 용	오늘도 흰 배경지를 깔고 조명을 맞췄다. 제품을 올리고, 각도를 조정하고, 셔터를 눌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또 다시. 조명이 너무 밝으면 반사판 위치를 바꾸고, 그림자가 걸리면 제품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겼다. 짧게는 삼십 분, 길게는 한 시간.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그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지 몇 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내가 찍은 사진이 얼마나 될지 세어본 적은 없다. 다만 그 사진들 하나하나에 내 시간이 들어있다는 것, 내 눈과 손이 들어있다는 것은 안다. 촬영 후에는 색을 보정하고, 이미지를 잘라내고, 파일명을 붙였다. 그렇게 올라간 사진이 상품 페이지에 실리면 나는 조용히 다음 제품을 꺼내 들었다. 그 사진이 어딘가에 있었다.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비슷한 제품을 검색하다가 낯익은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지도 같고, 조명 방향도 같고, 내가 반나절을 들여 잡은 그 각도 그대로였다. 다른 쇼핑몰 페이지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 있었다. 출처도 없이. 허락도 없이. 잠깐 멍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다. 그 사진을 찍던 날이 떠올랐다. 제품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느라 다섯 번을 다시 찍었던 일. 조명 위치를 바꾸느라 쪼그리고 앉아 허리가 아팠던 일. 수십 장 가운데 겨우 한 장을 골라내던 시간. 누군가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했을 뿐이지만, 그 사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회사에 이야기했다.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많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정말 많다는 말. 자주 있는 일이라는 말.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괜찮은 일이 되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

집에 돌아오니 큰딸이 노트북 앞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출처는 적어야 하지 않을까?"
딸이 말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것.
그 말이 오전에 봤던 쇼핑몰 사진과 겹쳐졌다.
아마 그 사진을 가져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냥 인터넷에 있던 사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미지.
거기까지였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지인 단체방에 누군가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글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다른 방에 공유하려다가 잠시 멈췄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 글은 누가 썼을까.
어느 새벽, 잠을 줄여 가며 문장을 고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진도,
짧은 글도,
영상도,
어쩌면 모두 누군가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저작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유명 작가나 가수, 영화감독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흰 배경지 앞에서 각도를 맞추던 나의 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학교 과제를 만들며 자료를 찾는 딸의 이야기였으며,
밤늦게 문장을 다듬던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예전의 나는 저작권을 작품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저작권은 작품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사진 한 장에는 누군가의 오후가 들어 있고,
글 한 편에는 누군가의 밤이 들어 있으며,
음악 한 곡에는 누군가의 청춘이 들어 있다.
우리는 종종 결과물만 본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날 다른 쇼핑몰에서 내 사진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단순히 이미지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제품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
 수십 번 셔터를 눌렀던 오후,
 퇴근을 미루며 보정을 하던 순간들이 함께 옮겨진 것 같았다.
 내 사진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안 날,
 나는 내가 무심코 가져왔던 것들도 모두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늦은 퇴근을 미루며 셔터를 누른 사람.
 새벽까지 문장을 고친 사람.
 좋은 장면 하나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
 저작권은 파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어쩌면 저작권이 지키고 있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살아낸 누군가의 하루인지도 모른다.